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2016 마을미디어활성화 주민지원사업>
매체형 분야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간행되었습니다.

성북동 마을 잡지 8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차례

3p **북정, 흐르다**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 최성수

6p **잘려나간 가로수를 지켜보며**
[특집] 성북동 가로수 / 이지연

10p **화관(花冠)을 쓴 마돈나**
[특집] 성북동 가로수 / 황선영

19p **성북동 가로수 벌목 사건과 마을계획의 미래**
[특집] 성북동 가로수 / 홍수만

25p **서울시 민속자료 제10호, 이종석 별장을 찾아서**
성북동 문화재 답사기 / 박진하

34p **혜화문과 한양도성 성곽길 골목 사이로**
성북동 마을여행 - 골목 탐방 / 날아라코끼리, 하늘빛사진관

45p **성북로8길 마미공방**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김민경

51p **ART & LIFE**
성북동 문화 아지트 / 아트 스페이스 벤

61p **푸른누리마을학교 & 동구여자중학교 시화전**
우리 동네 문학 살롱 / 편집부

71p **성북동 착한 형을 만나다**
주민 인터뷰 / 김현주, 오예주

75p **성북동 토박이 모녀를 만나다**
주민 인터뷰 / 김현주, 오예주

79p **월요약국으로 오세요**
주민 기고 / 최주애

86p **2016 성북동천은?**
성북동천 활동 / 편집부

92p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회원 모집 / 편집부

94p **마을미디어, 지역공동체, 어쩌다 4년차**
편집 후기 / 김기민



북정, 흐르다

최성수

천천히 흐르고 싶은 그대여,
북정으로 오라.
낮은 지붕과 좁은 골목이 그대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
삶의 속도에 등 떠밀려
상처 나고 아픈 마음이 거기에서
느릿느릿 아물게 될지니.

넙죽이 식당 앞 길가에 앉아
인스턴트 커피나 대낮 막걸리 한잔에도
그대, 더없이 느긋하고 때없이 평안하리니.

그저 멍하니 성 아래 사람들의 집과
북한산 자락이 제 몸 누이는 풍경을 보면
살아가는 일이 그리 팍팍한 것만도 아님을
때론 천천히 흐르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임을 깨닫게 되리니.

북정이 툭툭
어깨를 두드리는 황홀한 순간을 맛보려면
그대, 천천히 흐르는 북정으로 오라.



최성수는 성북동에 사는 시인이고 우리 잡지 편집위원이다. 시집 <장다리꽃 같은 우리 아이들>, <작은 바람 하나로 시작된 우리 사랑은>, <천 년 전 같은 하루>, <꽃, 꽃잎>과 장편 소설 <비에 젖은 종이비행기>, <꽃비>, <무지개 너머 1,230마일>, 여행기 <구름의 성, 운남>, <일생에 한 번은 몽골을 만나라> 등을 냈다. 이 시는 성북동 북정마을 버스 정류장에 새겨져 있는 작품이다.

잘려나간 가로수를 지켜보며

이지연

지난 8월 3일 수요일이었다. 아이와 함께 한신·한진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날따라 유난히 차가 밀려서 무슨 공사를 하나 싶었는데, 좌회전 차선으로 다가가 보니 성북로 중앙분리대의 나무들이 동강동강 베어져 거리에 텅굴고 있었다.

그 무렵 성북동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면서 보도 확장과 함께 가로수를 모두 베어버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 사업내용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반대의견을 전했기 때문에 당분간 공사가 진행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무작정 나무부터 자르는 건가 싶어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소식을 들은 몇몇 분이 직접 가서 공사 중지를 요청하였고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어 공사는 이내 중단되었다. 또 마침 그 날이 성북동 마을계획단의 전체모임이 있는 날이어서,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잘려나간 가로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우선 구청에서 관련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술가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로 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구청은 바로 다음 주인 8월 10일에 관련 사항에 대한 사업 설명 및 가로수 보호와 차선 확장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하였다. 토론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고, 나무를

지켜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지금 한성대입구역 사거리가 복잡한 것은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로 인한 좌회전 대기차선 구간이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빈번한 불법 주·정차, 무리한 차선변경과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 때문이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만약 그 문제가 해결 되어도 한성대입구 사거리 일대 도로의 통행 흐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가로수를 보호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가로수 문제가 생각보다 커져, 기존에 추진하려던 마을계획단의 모든 일정이 급작스럽게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가로수 사안 논의와 대응 활동은 마을계획단과는 별개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당시 성북동 마을계획단 단원이었던 강의석 씨가 주변의 예술인들과 성북동 가로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모아 ‘성북동 나무’ 대화방을 만들었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1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그 대화방에 함께 하게 되었다.

우선 잘려나간 두 그루의 나무에 대해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였고, 그 결과 단면을 고르게 잘라주고 상처 보호제를 발라주면 나무는 재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즉시 치료를 진행하였다. 이후 구청에서는 8월 3일 현재 베어진 두 그루의 나무를 뽑아서 다른 곳에 이식하고 그 만큼만 차선을 확장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물어왔다. 그러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를 뽑을 경우 도로 3차선을 모두 파헤쳐야 할 것이며, 이식할 경우 나무는 재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었다.

여러 번의 촉구 끝에 구청에서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나무가 잘려서 행해진 곳에는 다른 나무를 이식하고 조경공사를 진행하며, 이후 마을에 변화가 생길 경우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묻는다는 답변을 주는 것

으로 '성북동 가로수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동네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간 거주했고 또 이제는 일터가 된 여기 성북동은 3, 4대가 모여서 이웃하여 함께 살고 있는 동네다. 또 성북동은 온통 도시를 획일화하는 재개발의 광풍에서 벗어나 골목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해결되지 않는 주차문제 서울시내에 몇 개 남지 않은 마을이다. 살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선택한 동네인 만큼 지금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았다.

재개발과 턱없이 치솟아 버린 집값 때문에 어릴 적에 살던 동네에서 살고 싶어도 살수가 없는 상황이 된 나로서는 이 동네만큼은 아주 천천히, 지킬 것은 지키고 보전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북동의 나무 두 그루는 이렇게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지킨 것이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기여한 바는 별로 크지 않지만 주민들의 행동과 의견을 옆에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괜한 자부심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무에 새잎이 돋았다. 더 이상 우뚝 솟아있지는 못하지만 잘린 나무들은 나뭇의 모양으로 자라날 것이다. 나무들 중 맨 앞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베어졌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옛 추억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성북동이 나아갈 지향점을 분명히 알려준 나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이지연은 햇빛 가득하고 바람 살랑이는 동네가 궁급해서 왔다가 성북동에 살게 되었다. 신랑과 '카페 디터틀'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카페 디터틀은 마을살이 중 소소한 수다가 필요한 주민을 환영한다고 한다. 성북동 마을계획단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화관(花冠)을 쓴 마돈나

황선영

서울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한다. 조용한 주택가였던 거리가 단 2, 3년 만에 떠들썩한 유흥가로 변하거나 북적였던 거리가 스산하리만큼 인적이 끊기는 일도 드물지 않다. 성북동으로 이사 온 지 이제 약 4년을 넘겼을 뿐이지만, 어느새 하나 둘씩 달라져가는 풍경들이 쌓여 처음 이 동네에 발을 들였을 때에 비하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닫고 새삼 놀랄 때가 있다.

그러나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간판은, 건물들은 바뀌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오랜 세월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나무들 말이다. 예전에 대학로에서 일하던 시절, 바쁘게 오가는 와중에도 가끔씩 발을 멈추고 마로니에 공원이며 해화동 골목 사이사이에서 해묵은 은행나무의 굽직하고 반드러운 동치와 무성한 잎들을 올려다보곤 했었다. 비단 종로구뿐만 아니라 오래된 동네에는 반드시 높고 무성한 나무들이 있어 그곳의 역사를 증명해주고, 오랜 이름에 걸맞은 안정감을 풍겨 주고 있는 것이다.

성북동 역시 마찬가지다. 한성대입구역 네거리에서 성북동 안쪽으로 향하는 도로 가운데는 하늘을 찌를 듯 위풍당당한 플라타너스들이 늘어서서, 봄부터 가을까지 무성한 가지와 잎을 펼치고 있었다. 성북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 물론 그것은 지하철역이나 인도에 깔린 보도블록이나 편의점의 간판처럼 이 거리의 배경일 뿐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 동치가 무참하게 잘려나간 그날 이후에야, 사람들은 그곳에 나무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8월 3일, 내가 속해 있던 스마트폰 메신저의 〈성북동 마을계획단〉 그룹을 통해 ‘성북동의 가로수가 잘려나가고 있어요!’라는 급박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믿기 힘든 소식이었다. 사진을 보지 않았다면 그 말을 믿지 못했으리라. 성북로 가운데 위치한 아름드리 플라타너스를 베어 넘기고 있다는 소식과 이미 동강이 난 나무의 사진. 공사 현장을 처음 발견한 마을계획단원 중 한 사람이 공사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이미 두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간 후였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무성한 풍채는 간데없이, 사람 키 정도의 민송한 줄기 하나와 그루터기 하나를 남긴 채, 조각난 동치와 가지들이 바닥에 나뒹그러진 채. 70년 나이 먹은 아름드리 플라타너스는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잘려나갔다.

메신저를 타고 소식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공사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왜 이 나무가 잘려나가는지, 누가 공사를 벌였는지 알지 못했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얼마 전 인도 확장 공사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공사가 아니겠는가, 정도였다. (주민 반대 의사가 많은 공청회였으므로 관련 공사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얼마 후에야 구청에서 실시한 ‘좌회전 차선 확보’를 위한 공사라는 정보가 알려졌다. 성북로에서 한진·한신 아파트방향으로 올라가는 세거리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느라 해당 구간에서 상습적인 정체가 일어나므로, 도로를 넓혀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세 그루의 나무가 완전히 뽑혀 나가고 그 넓이만큼 도로를 확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어떤 고지도 없이, 공청회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된다는 것도, 아름드리나무를 손쉽게 베어 넘긴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구청의 입장은 ‘길을 넓혀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나무 세 그루를 베어내는 것은 작은 공사이기에 굳이 공청회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령 70여 년의 나무를 하루아침에 잡초처럼 뽑아내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치부될 수가 있는 것일까.

적어도 성북동의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메신저에는 <성북동 나무>라는 제목의 대화방이 개설되고 주민들, 활동가들, 성북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들, 성북동 마을계획단원들이 속속 들어와 대책을 상의했다.

공사 중단을 요구한 첫날 밤, 사람들은 밤새 나무를 지키며 남은 등치에 ‘나무를 살리자’는 포스터를 붙이고, 비닐 랩으로 포크레인을 둘러쌌다. 위압적인 포크레인이 투명한 비닐 랩에 둘둘 말려 움푹달작 못하는 듯이 보이는 이 퍼포먼스는 나무를 둘러싼 ‘평화적인 전투’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성북동 나무를 지켜달라는 서명 운동과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고,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주민토론회 준비가 시작되었다. 나무를 지키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이 처음 공사를 발견한 순간부터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1차로 8월 10일, 가로수 보호를 위한 주민입장발표회가 열렸다. 성북동 주민센터 강당에 모인 주민들 대부분이 공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다음날 구청의 답변은, ‘나무는 이동하고 도로 확장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타협하지 않고 2차 주민토론회를 진행하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의견은 ‘길을 넓혀서까지 좌회전 구간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진·한신아파트 방면으로의 차량 이동은 유턴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해당 구간의 정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방해 때문이니 해당 구간에 대한 단속을 확실히 하고 표지판을 통해 차량 흐름을 유도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차량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성북동의 상징과도 같은 나이든 나무들을 소홀히 취급하는 데 대해 사람들은 분노했다.

나무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행정적으로 가로수는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오래 묵은 나무들을 과연 단순한 관리 대상이나, 길에 깔린 블록처럼 필요에 따라 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물건으로만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지역의 역사로, 모두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성북동 가로수를 살리고 싶어 했던 주민들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에서 가로수를 ‘관리’한다는 것이 지자체 마음대로 그것을 처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길을 넓힌다,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간판을 가린다... 나무는 갖은 명목 하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가장 손쉽게 제거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목되어왔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나무 자체를 생명으로 혹은 공공재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다.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데 드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것은 얼마나 경솔한 판단인가. 또, 한 두 그루의 나무를 취급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세간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열악한 것인가.

8월 19일에 열린 2차 주민토론회와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주민들은 성북동 가로수에 대해 변함없는 입장을 전달했다. 마침내 구청은 주민들의 입장을 수용하여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아니 사실은, ‘살리기’로 할 것도 없었다. 나무는 처음부터 살아 있었다.

그로부터 두어 달 가까이 지난 지금, 황량하던 나무 등치에는 새로운 잎이 돋아나 여러지만 선명한 초록색의 새 나뭇잎들을 머리에 왕관처럼

럼 두르고 있었다. 무성하던 몸뚱이의 대부분을 잃은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새싹을 틔워냈다. 사람들이 나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 다투는 사이, 제 힘을 다하여 새 가지를 뻗고 있었던 것이다. 멀리서 본 그 모습은 영광의 월계관을 쓴 승리자처럼, 혹은 화관을 두른 마돈나처럼 보이기도 한다.

구청은 잘려나간 나무를 대신이라도 하듯, 가로수 주변에 관목을 둘러 심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점차 옛 모습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성북동 가로수를 둘러싼 일들을 잊지 않으려 한다. 잘려나간 나뭇가지와 주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며 내걸었던 현수막 등을 수거해 기념품이나 조형물을 만들자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

성북동 가로수 사건을 중심으로 몇 주 간 참으로 많은 말들이 오갔다. 어떤 사람들은 ‘마을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지자체의 ‘불통’ 지탄했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어떤 사람들은 민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정을, 자르고 덧붙이는 식의 계획성 없는 개발을, 환경에 대한 낮은 인식을,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임시방편의 얕은 수에 대해 꼬집었다.

성북동 가로수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공공의 문제를 인식하고 행정 기관에 문제를 제기, 갈등이 해소되는 일련의 과정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 사건은 일견 주민들의 의견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의지로 공공재와 거기에 얹힌 가치를 지켜낸,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 일로 보인다. 한쪽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며 한쪽으로는 나무를 지키기 위한 직접 행동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추진력도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 주민모임, 자치기구, 지역 활동가 그룹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중심으로 모였지만, 성북동 가로수에 얹힌 정확한 논점이 정리되지 못한 면이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했고 가로수에 대한 가치 판단

도, 보호 운동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꽤나 다채로운 생각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조율하며 공통된 정치적 의제를 추출해 내는 과정이 성공적이었는지는 단언할 수가 없다. 구청이 빠르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이 조율 과정에서 주민들이 합의가 실패하고 자체적으로 지리멸렬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성북동 가로수를 둘러싼 한여름의 소동을 지켜보며, 나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조금 더 명확히 알게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을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단지 거주지로서의 ‘집’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꾸리는데 동참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주민들이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조정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좀 더 섬세한 조율과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공동체의 가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말해야 하고 타인이 갖는 가치도 존중해주어야 한다. 어떤 가치가 가장 공공의 이익에 가까운지 정한 다음에는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 또한 대화와 존중을 통해 협상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존중하는 자세이며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신념이다. ㉮

-
황선영은 문화 기획을 업으로 삼으며 살았다. 올해 동네 지인의 권유로 성북동 마을계획단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거주지인 성북동과 일터인 연남동 양쪽에서 본격적으로 마을활동에 뛰어들었다. 성북동에서 곰신랑, 달고나, 귀동이와 함께 알콩달콩 오래오래 살고 싶은 5년차 세입자이다.



[특집] 성북동 가로수

성북동 가로수 벌목 사건과 마을계획의 미래

홍수만

지난 8월 3일 성북로 나폴레옹제과점 앞 좌회전차로 개선을 위한 공사 중 시공업체 측에서 도로 중앙에 있는 가로수를 벌목하였다. 이를 발견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동의한 주민들이 모여 들자 공사가 중단되었다. 공사의 주체인 행정은 당황스러워했고 주민들은 발 빠르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서명전과 1인 시위, 퍼포먼스, 언론 제보, 반대 서명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북동 가로수 벌목 사건에 있어 행정의 환경 파괴적인 인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성북동 마을계획단도 합류하여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잠시 성북동 마을계획단을 설명하자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 중의 하나인 마을계획을 수행하는 주체로, 행정동(洞)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이다. 지난 5년간 주민공동체 사업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마을자치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북동은 작년 7월부터 마을계획단을 운영 중이다.

주민토론회에서나 SNS에서나 가로수 벌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압도적이었다. 성북동 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역문화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을 단순히 살아가는 장소가 아닌 문화적 자산 가

치를 공유하고 지켜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훨씬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은 그러한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어진 절차를 답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주민 반발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물론 공사를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은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민원과 반대의견 그리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성북구는 앞서 말한 대로 마을계획을 진행하는 자치구이고 성북동은 마을계획단을 운영 중인 곳이다. 물론 공사 계획은 2015년에 수립이 되었고 그 근원이 되는 좌회전차로 개선에 관한 민원은 담당자의 말대로 2013년부터 계속 접수되었던 것이며 가로수는 보호종이 아니기에 공사 진행에 있어 절차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마을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력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하는 행정이 왜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만큼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선 능동적이지 못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최된 주민토론회에서 중요한 주민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가로수를 단순히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공존하는 자연문화가치로 인식하고, 민원과 같은 부득이한 문제가 발생해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대상이 가로수를 포함한 공공자산에 해당된다면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특별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의 일방적인 지역 단위 계획 수립이 아닌 주민 중심의 마을계획을 운영하겠다는 더욱 그러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마을계획단 운영이 중요해진다. 지금의 마을계획은 일

년 단위의 마을총회라는 주민투표를 향해 달려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묻는 마을총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역의 문제가 일 년 단위로 발생하거나 해결 과제를 마련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장기적 비전 수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여기서의 제도적 지원은 단순히 규정 제정과 행정 보조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마을총회를 넘어 마을계획단에 참여한 주민을 포함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체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말하는 것이다.

마을계획 이전에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주민이 투표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로만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제들이 주민들에게 정말 유용한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탈락된 사업들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마을계획단이 중심이 되어 주민토론회나 그에 준하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행정은 어떤 결과나 결론을 내는 주체여서는 안 된다. 현실적 제약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 관점의 원활을 추구하지 않고 의견 수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컨대 현행 법률 안에서 제한 사항이나 한계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제한이 있기에 불가라는 답변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어떠한 부분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것, 그리고 소수의견이 다수의 횡포나 압력에 묻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이제껏 행정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진행을 전제로 한 주민공청회를 경험했던 행정이 앞서 말한 관점과 입장에서 주민토론회를 지원한다는 것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주민들에게 무엇을 요

구한다면 그만큼 행정 내부의 인식 전환 및 제도 개선도 반드시 뒤따라야 앞으로 이어질 민관 협치도 본래의 의미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으로만 협치를 내세우거나 행정의 입맛에 맞는 특정 집단만 참여하는 것이 민관 협치는 아니고, 또 아니어야 한다.

이 이외에도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주민들 간 소통이다. 이번 성북동 가로수 별목 사건으로 개최된 주민토론회에서도 드러난 문제이기도 한데, 주민 주도의 동 단위 마을계획과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그에 따른 다채로운 의견들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때로는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며, 감정적 접근을 자제하고 경청과 배려가 필요하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리적 제안이나 방법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불미스럽게도 성북동 마을계획단장이 이번 토론회 건으로 인하여 사퇴를 하게 되었고 마을계획단 활동도 완전히 접게 되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주민토론회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주민토론회에 있었던 일들을 복기하고 참여한 주민들 또는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토론회의 상(像)을 함께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 간 소통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올바른 소통의 과정에서야 비로소 지금보다 나은 계획을 수립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소기의 성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이 가능한지도 타

진해 볼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평가해볼 때 지금의 마을계획은 행정 주도의 계획이다. 주어진 틀 안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정말 주민들에게 마을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은 성립될 수 있는지,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이 지속 가능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주도한다면 그만큼 주민들의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이 과정이 크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담 속에도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동참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때 마을계획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질 것이며, 형식적인 마을계획인 아닌 살아있는 마을계획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

홍수만은 돈암동에 살면서 월곡동 삼태기마을 상임활동가이고 정릉2동의 사위이며 성북동 동네공간에 터를 둔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이다. 유쾌하고 재미난 마을살이를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성북구 안팎 곳곳을 종횡무진하며 밤낮 없이 고군분투 하고 있다.



박진하

성북천은 북악산 근원지에서 출발하여 성북동을 향해 곧바로 직진한다. 그러다 한 차례 휘감아 돌아 나가는 지점이 있으니 그 곳이 덕수교회가 있는 장소이며, 이곳에서 이종석 별장을 찾을 수 있다. 시냇물이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돌아 나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지세(地氣, 땅의 기운)가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명당인 것이다.

사실 이종석 별장을 찾은 횃수는 세 번이지만 제대로 본 것은 한 번뿐이다. 첫 번째 답사일은 월요일이었는데 관람 가능한 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하지 못하였다. 다시 알아보니,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관람 가능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찾아갈 때는 휴관일을 피해 평일 오전 11시에 방문해서 입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관람 시간도 때론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4시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찾았더니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 문화재를 덕수교회가 구입해 영성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덕수교회를 지나 바로 다음 출입문에서 왼편으로 굽어 돌아 들어가면 좌우로 커다란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있어 들어가는 길의 분위기를 더해 준다.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노인학교를 거쳐 나아가면 화강석을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다듬어 마름모꼴로 쌓아올린 축대가 보인다. 그 기단 위로 담장이 놓여 있고, 축대와 담장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 여러

관목을 식재해 키우고 있다. 잘 자란 관목들이 담장을 가리고 있음에도 대문 가까이 다가가면 담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각 석을 밑에 두고 그 위로 회벽돌을 쌓은 모습이다. 그 벽돌 층 사이에 십자 무늬로 투각을 만들어 집안을 슬쩍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마무리는 기와로 덮개를 만들어 올렸다. 이중석 별장에 다다른 것이다.

이 집은 여러모로 특이한 점이 많은데, 그 첫째는 출입 경로이다. 보통은 큰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대문을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옥은 담장 옆을 지나 산 밑 공터에서 되돌아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다른 건물과는 정반대의 장소에 솟을대문이 있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터가 이른바 집 밖에 있는 바깥마당이 되는 셈이다.

산자락을 깎아 만든 이 마당 왼쪽으로 우물터가 보인다. 그런데 이 맞배지붕 형식의 우물을 보고 있으니 그리움이 느껴진다. 요즘은 사라져버려 쉽게 볼 수 없는 추억의 장소이기에 그런 것일까? 옛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마을 어머니들이 모여 정겹게 인사를 나누던, 여인들의 사랑방 같은 장소가 우물터였다. 다 같이 사용하던 공동 우물터는 아니었지만 그만이 가지는 그리움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물은 굳게 닫혀져 있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은 정중앙보다 다소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 양중맛을 정도로 작은 솟을대문은 큰 부호의 별장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소담하다. 그 문 우측으로 펼쳐진 담장은 단순하게 회벽돌을 겹겹이 쌓아 올린 것이며, 왼편은 화강석 조각편을 모아 만든 하단부와 십자 무늬의 투각을 중심에 두고 쌓아 만든 회벽(灰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대문이 우측으로 치우쳐 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건물이 아니라 담장 옆으로 길게 가꾸어진 화단이다. 높고 긴 담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큰 솟을대문을 밀치고 들어서면 큰 마당 저편으로 큰 건물이 위용 있게 서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것같 장사로 큰돈을 번 장사치의 집 치고는 다소 특이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기의 재산과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커다란 대문과 큰 마당, 들어오는 사람을 위협할 정도의 커다란 건물 등이 있을 법한데 이 집 주인은 이런 상식을 뒤엎어 버린 것이다.

이 집을 찾는 이들을 처음으로 반겨주는 것이 화초라는 것도 이색적이다. 빨간 백일홍 꽃을 피운 배롱나무, 말발도리, 옥잠화 등이 수풀을 이루고 있다. 그 속으로 역시 꽃무늬 장식의 석등이 묵묵히 오는 이를 반기고 있는 모습이란! 영리에 밝은 장사치들마저 시인이 될 것 같다.

일반적인 답사에서는 행랑채를 먼저 보고 안채를 살펴보게 되어있지만, 이 가옥에서는 이 집이 이끄는 방식으로 따라가 보기로 했다. 화단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니 누마루 밑 장대석이 눈에 띈다. 그곳에서 왼편으로 가면 평지를 약간 높은 곳에 크고 작은 장독들을 하나 가득 모아둔 장독대가 있다. 장독대를 누마루 장대석 밑과 옆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멋진 장면을 연출해낸다.

그 뒤로 정사각형의 화강석으로 하단 부를 만들고 그 위로 화초를 식재해 두고 있다. 경복궁 후원 담에서 보던 화단과 같은 형식이다. 안채에서 뒷문을 열어젖히고 바라보면 딱 그 눈높이에서 화단을 볼 수 있도록 한 구조다. 그 화단 뒤편으로는 보다 작은 크기의 사각 석과 회벽돌로 꾸민 담장을 배치하였고, 그 층간은 흰 회벽과 벽돌로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어 장식하고 있다. 흰 바탕에 회벽돌을 작은 크기로 잘라 넣어 멀리서 보면 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보다 조금 큰 벽돌을 넣은 부분은 점선으로 보이기도 한다. 안채로 들어가 화단과 아름다운 미장의 어울림을 확인해 보고 싶었으나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옥의 주인 격인 안채를 만날 시간이다. 이곳에서도 특이함은 계속 이어진다. 대문에서 볼 수 있는 벽면은 측면이고,



정면은 오히려 담장 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다. 건물 전면에는 기다란 화강석을 양측으로 각각 3개씩 놓아 만든 계단이 있어, 출입문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면은 전체적으로 6칸이다. 중앙 3칸은 안채이고 좌측 2칸은 부엌과 찬방, 그리고 나머지 우측 1칸은 이 건물의 가장 특별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누마루이다. 보통 양반가에만 허용하던 누마루를, 마포에서 젓갈로 큰돈을 번 부호가 이런 형식으로 안채에 붙여 만들었던 것이다. 경회루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누마루에 비하면, 이곳은 크기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이 건물이 왜 이렇게 특이한 구조인가를 알아보려면 ‘집주인이 이 별장을 무슨 목적으로 건립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보아야 한다. 그의 본가는 장교동에 따로 있었다 하니 이 가옥은 일상적인 거주 공간이 아닌, 여유를 즐기기 위한 별장 용도로 건축된 건물이었을 것이다. 경치 좋은 장소에서 한시를 짓고 이를 서로 나누던 양반들과는 달리, 당시 상인들이 유흥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라고는 주로 먹고 마시는 것이었다.

사람이 먹은 음식으로 그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집을 보면 그 주인의 성격이나 생활방식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집을 건립한 사람은 마포 나루에서 젓갈로 부호가 된 이종석이라는 장사치였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왕실의 소유였던 것을 이 거부가 인수한 것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로 살펴보건대 이 건물은 젓갈장사꾼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 가옥은 대단히 효율적이고, 과감할 정도로 기존 전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안채는 전체적으로 “ㄴ”자와 “ㄱ”자를 결합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중앙에는 안채가 3칸 넓이로 차지하고 있으며 그 좌측 두 칸은 부엌과 찬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부엌이 차지하고 있는 두 칸은 후원

쪽으로 세로로 한 칸 더 길게 되어 있어 음식을 만들고 요리하던 공간은 보다 넓다.

그 반대편에 있는 누마루 한 칸은 앞 쪽으로 한 칸 더 넓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마루 밑이 텅 비도록 장대석을 기둥 삼아 원두막 같은 방식으로 건립되어 있다. 아마도 유흥 공간으로 쓰였을 것이다. 이 누마루에는 ‘일관정(一觀亭)’이라는 당호가 붙여져 있었다 한다. 이 누마루에서는 넉넉히 흘러 내려가는 성북천의 도도한 흐름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맞은편에는 미륵사라는 절이 있었고, 미륵당 옆에는 정자가 있었다. 그 옆으로는 폭포가 있었고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운치가 있었다. 그곳의 경치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며 술 한 잔 마시는 장면을 상상하면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피어난다.

보통 우리 한옥 구조를 살펴보면 안채와 사랑채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즉 누마루가 있는 사랑채와 부엌과 안채가 있는 공간이 별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부엌에서 만든 음식상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로 이동하여 누마루까지 다가갈 수 있다. 진탕 술을 마시다 피곤하면 바로 옆 공간에 있는 안방으로 옮겨가 쉴 수 있다. 이 얼마나 편리한 공간 배치법인가! 이 얼마나 실용적인 방식인가!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창의적인 공간 배치 방식을 찾아 실현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답사기를 쓰기에 앞서 이처럼 독특한 구조의 집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의 일생을 밝히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우리의 역사 연구가 정치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경제사, 사회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마포에서 젓갈 장사로 큰돈을 번 부호라는 간단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상인들의 활동을 연구한 ‘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국사편찬위원회)’라는 서적에 의하면 마포는 용산과 송파 나루와 더불어 한강변에 설치된 상인들의 주요거점이었다. 당시는 한강을 이용한 선상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산물이 이 강을 통해 한양으로 유입되었고 황해도와 평안도 산물들도 이 한강을 경유하여 서울로 집결되었다. 이들 상인을 강경상인이라 하였고 마포나루는 생선, 건어물, 젓갈이 주로 거래되었던 장소였다. 그나마 이것이 이종석에 대해 추측할 만한 유일한 부분이다. 혹시 몰라 조선조 말기 상인들의 활동상을 사실에 근거하여 엮어낸 김주영 장편소설 『객주』라는 작품도 다시 살펴보았다. 역시 그곳에도 없다. 다만 이들의 삶이 녹록치 않았고,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를 쟁취한 거상들의 배포는 보통이 아니어서 전쟁터를 누비던 장수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선비 못지않게 처절한 삶을 영위했음을 짐작해 볼 따름이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추정컨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거상이 된 이종석은 엄청난 용기와 지혜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이런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건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

또 특이한 점이 있다. 전체 토지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건폐율이 높다는 것이다. 거의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채워 넣은 건물이 29.8평을 차지하고 있다. 정말로 토지 활용성을 최대한 높인 가옥 구조다. 또 모든 창호는 대체로 격자무늬 창살을 하고 있으며 지붕 구조는 팔작지붕 방식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를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소박하다 할 정도로 무미건조한 건물인데, 이 건물이 건립 초기에 화려하다 비난 받았다 함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지금의 규모나 외부만 보고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규모에 비해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다. 아니면 외부에 비해 내부 구조가 화려했다든지 하면 그 또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없다. 아니 직접 들어가 본다 해도 특이한 점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한옥에서 내부 인테리어의 가장 큰 부분은 가구가 차지하고 있고, 어떤 가구를 가져다 놓느냐에 따라 그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부 장식이나 가구가 사라진 상태일 것이다. 아니 내부 편리를 위해서 변형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를 관람하고 나오면 입구 오른 쪽으로 행랑채가 보인다. 그 구조는 ‘T’자 구조이다. 부엌과 찬방은 보다 길게 세로로 배치되어 있다. 이 건물에 가로로 붙인 세 칸의 행랑채가 있다. 네 개의 여단이 출입문을 드나들 수 있는 방이 두 칸, 하얀 회벽 가운데에 두 개의 여단이 출입문을 설치한 방이 한 칸이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 평이했을 공간을 이렇게 형식을 달리한 방 배치로 그 미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후면 역시 마찬가지이다. 뒤뜰로 돌아가 보면 두 개의 큰 문과 보다 높은 위치에 만들어진 창문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행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중문이 있어 이를 통해 드나들 수 있었다 하나 지금은 없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빈틈이 거의 없다. 약간의 빈 공간이라도 있으면 초목을 식재해 두었다. 역시 이 별장은 옛 주인의 의도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진하는 성북동의 명소인 작은 식당 ‘디미방’을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요가와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우리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성북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성북동 사람이다.



성북동 마을여행 - 골목 탐방
혜화문과 한양도성 성곽길 골목 사이로

글·그림 날아라코끼리 / 사진 하늘빛사진관

한적한 곳에 작지만 특별한 가게를 꿈꾸며 이 골목에 자리 잡은 지도 4년. 하지만 아직도 유리문을 뺄때 열고 ‘여기 커피도 팔아요?’ 혹은 ‘여기 사진도 찍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한 곳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날아라코끼리, 하늘빛사진관이라는 작은 간판을 단 이곳은 카페와 사진관이 함께하는 한 지붕 두 가게다.

이 장소를 처음 알게 된 건 2009년이다. 평소 사거리 모퉁이에 가게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 앞을 지나다 이곳이 딱 그런 곳

이라 계속 기억에 남았었다. 인근에서 사진관을 할 때에도 길상사를 비롯한 성북동의 여러 명소들을 구경 다니거나 몇몇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조금씩 이 동네를 알아가게 되면서 여러 예술인들이 자리 잡고 활동하는 이곳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몇 년 뒤, 이 장소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이게 바로 인연이구나 생각했다. 더군다나 밖에서 볼 땐 몰랐는데 안에 들어서 보니 평소 동경했던 한옥이었다. 원하던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으니 더 따질 것도 없이 바로 이곳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또 혜화문 성곽길 바로 아래여서 나지막한 건물들 사이로 성곽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서울 시내에 이런 풍광을 선사하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막상 지내보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다. 천장이 낮아 사진관 촬영조명을 놓기 어려웠고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 카페의 좌석을 많이 만들 수도 없었다. 오래된 곳이다 보니 툭하면 문제가 생겨 계속 손을 써야 했다. 그래도 여기 있고 싶게 한 매력을 생각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만한 것이었다.

등지를 튼 초반의 여름밤은 수많은 날벌레와의 사투로 기억된다. 골목 안에 늦게까지 불을 밝힌 가게는 우리 하나뿐이라 날벌레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렇게나 한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니 지금은 밤에도 환해졌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골목탐방을 나서보려고 한다.

먼저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막국수 집은 이미 다른 곳에서 이름이 난 터라 문을 열자마자 이 골목을 북적이게 했다. 사거리 주변으로는 맥주바, 스테이크집, 닭볶음탕집, 브런치카페가 있고, 혜화문이 있는 왼쪽 길로 걸어가면 이곳을 국수거리로 불리게 한 국수집들이 있다. 그 옆으로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소인 라파엘센터가 있는데 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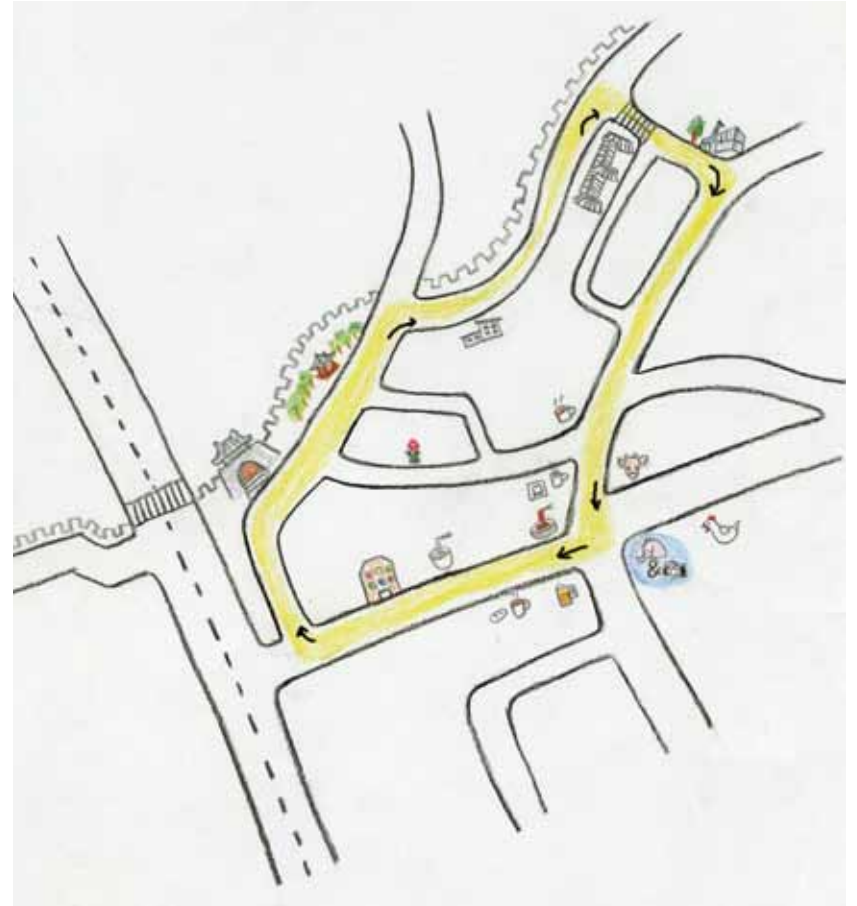
마다 진료를 한다고 한다. 골목의 끝, 우렁쌈밥집을 끼고 바로 오른쪽으로 돌면 혜화문이 보이는데, 이곳에 오르면 여기가 주택가 골목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고궁에 온 듯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원래는 이어져 있었겠지만 지금은 성곽이 끊어져 혜화문만이 오롯이 서있다. 반대편 성곽산책로로 가려면 대로를 건너 가야하는데 최근에 바로 아래에 건널목이 생겨서 전처럼 돌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성곽산책로를 따라 가면 낙산공원과 벽화로 유명한 장수마을, 이화마을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 시간이 넉넉할 때 여행하는 기분으로 산책을 나서보면 좋겠다.

다시 혜화문으로 돌아와 반대편 성벽을 따라 내려오면 정자가 있는 쉼터가 있는데 풍경도 아름답고 운동기구도 있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쉬어가기 좋은 장소다. 쉼터 맞은 편, 작은 골목길 안에는 아기자기한 꽃집과 공방이 들어서 있고, 길을 따라 쪽 내려가면 갤러리 카페도 있다.

쉼터 앞 성곽 왼쪽의 서울시장 공관이었던 자리에는 새로 전시장과 카페가 들어서게 된다는데, 10월 중순 오픈예정이라고 한다. 맞은편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우리 골목 근처에서 캐리어를 끌고 두리번거리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곳을 찾아온 것이다.

게스트 하우스 옆, 담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언덕 아래에 웅기종기 모인 한옥 기와지붕들의 모습이 참 정겹고 좋아, 이 앞을 지나갈 때면 꼭 까치발을 하고 담에 달라붙어 보고 가곤 한다. 곧 나타나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방식꽃예술원(마이스터플로리스트 꽃기예학원)’ 건물이 있다. 이곳에서 수업이 열리는 날엔 한아름 꽃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무리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가게와 잘 어울린다면 실습한 꽃바구니를 선물 받은 적도 있었다.







혜화문과 한양도성 성곽길 골목 사이로





길을 따라 내려오면 연달아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인다. 이전까지는 간간히 보이는 정도였다면, 근래에는 경쟁하듯이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하고 한꺼번에 건물이 올라간다.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한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허물고 현대식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전부 다 완공되면 이 안쪽으로 가게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다.

어느덧 다시 우리 가게 앞에 도착했다. 산책을 하면서 새삼 4년간의 변화를 실감한다. 아직까지는 이 골목에 토박이 주민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래된 가게도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지만, 바뀌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 변화무쌍한 와중에 부디 성북동이 우리가 시작할 때 꿈꿨던 것들을 오랫동안 펼칠 수 있는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날아라코끼리와 하늘빛사진관은 중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두 사람이 각각 운영하는 카페와 사진관이다. 카페지기는 그림을 그리고, 사진관지기는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한다. 종종 드림캐처나 테디베어 등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원데이 클래스도 열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정체가 불분명해서 그냥 운영자들끼리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성북로8길 마미공방

김민정

이런저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인적이 조금 드문 곳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나는 골목이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작은 서점 구경을 하러 성북동에 왔다가 시골 냄새나는 사잇길에 반했다. 그 길로 부동산에 들러 이 공간을 안내받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어느새 짝 채운 2년이 되어가는 성북동 작은 공방, 마미공방이다.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마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고 싶다. 따뜻한 밥을 짓는 엄마의 마음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만든 향을 한가득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미공방'이라 이름 짓

고 이곳에서 매일매일 작업을 한다.

대부분의 시간은 양초 작업을 하고 있고, 양초가 굳는 사이사이의 시간들을 뜨개질이나 캘리그래피 작업으로 채운다. 주로 양초를 만들기는 하지만 손을 움직이는 여러 작업을 하는 곳이라는 설명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직접 꽃을 말려 재료로 활용하고 있어 드물게 꽃집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언뜻 서로 연관성이 없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은 명확하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작업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차나 커피를 마시며 홀로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 조용하고 낮은 건물이 있는 공방의 골목길은 계절의 냄새를 느끼거나 변화하는 하늘을 바라보기에도 좋다.

좁은 골목길 꺾인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눈길이 쉽게 가지 않는 공간이라 외부인의 방문이 빈번한 편은 아니다. 대개는 오후 한시부터 여덟시까지 열려있지만, 늦어지는 작업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불 켜진 상태일 때도 있는가 하면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문을 열지 못 할 때도 있다. 출강이나 회의 같은 외부 일정으로 문을 닫는 날들도 있어 연락 없이 오는 분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할 때도 있다.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안함이 밀려오는,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곳이다. ‘지난번에 왔는데 닫혀 있었어요’, ‘죄송해요. 오시기 전에 꼭 연락부터 해주세요’ 같은 말들은 마미공방에선 ‘안녕하세요’의 또 다른 표현이다.

주로 개인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직접 향을 맡아보고 싶어 바지런히 찾아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맞이하기도 한다. 개인 취향 혹은 사용할 장소에 맞는 향이나 종류를 추천해주기도 하지만, 정유(精油, Essencial



Oil)를 이용하여 직접 혼합(Blending)도 진행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오일 추천이나 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사람들도 있다. 향에 관해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캔들을 제작하거나 직접 본인만의 향을 만들어 향수나 방향제(Diffusor) 등으로 활용하는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하다.

냄새나 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억과 감정을 자극하는 연상 효과가 뛰어나다. 향과 오일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하면 그 향에 관해 어떤 추억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좋아하는 향이 무료하고 힘든 일상에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향이 가진 이런 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손으로 만드는 짧은 수업이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시간 제약 없이 저마다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개별적 진행의 수업이라, 힘은 더 들지만 훨씬 보람차다. 둘러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맛있는 차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

최근에는 작업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러 들어와서 함께 만들고 싶다는 즉석에서 수업을 제안하는 동네 주민이 생기는가 하면, 늘 지나다니며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분이 긴 시간 뜨개질을 배우고는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환한 미소를 선물해주기도 했다. 공방 앞에서 열린 마켓에서 알게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마다 발걸음을 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소소하고 작은 방문들이 좋다. 갑자기 변화가 빨라진 동네에서 쉽표를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는 공간이 되고 싶다.

늘 혼자 작업하고 있어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주변

엔 나와 비슷한 여러 개의 공방들이 있다. 우리의 작업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모아 작은 마켓을 열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개인이 우리가 되는 시간이다. 우리가 있는 곳도, 마켓이 열리는 장소도 성북로8길인 것에서 착안해 ‘프롬에잇(From 8)’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프롬에잇’은 성북동에 자리한 자기 공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섞이는 시간이다. 차곡차곡 쌓인 시간들이 어느새 1년이 되었고 지난 9월에는 작게 1주년을 기념하기도 했다. 마켓은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있다.

늘 어수선하고,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직도 허둥지둥하기 일쑤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꽉꽉 들어찬 곳이라서, 꽃이 있고 향이 나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서, 마음이 늘 반짝반짝하다. 즐겁고 반짝이는 기분으로 성북동 작은 사잇길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

김민경은 건축을 전공했고 집을 설계했지만 지금은 성북동 마미공방 운영자이고, 「마미 캔들 스토리」 저자이며, 향을 만들고 뜨개질을 하고 손 글씨를 쓰는 작업자이다.



성북동 문화 아지트
ART & LIFE

아트 스페이스 벤

아트 스페이스 벤(ART SPACE BEN)은 'ART & LIFE' 전을 2016년 9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24일까지 선보인다. 이 전시는 작년 ART & LIFE 전시에 이은 두 번째 ART & LIFE 전시에, 에이스 에비뉴(ACE AVENUE)의 디자인 가구와 회화와 사진, 설치작품 등의 예술 작품들이 함께 어울리는 상업과 예술의 경계 너머의 라이프스타일 전시로 기획되었다.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구와 미술을 주인공으로 끌어들여 집의 구조 속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지점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세련되고 격조 있는 삶의 문화를 제공한다. 일상생활 공간 속에서 현대 미술과 현대의 가구가 어떻게 조우하여 함께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는지 보여주며 세련되고 격조 있는 삶의 문화를 제공한다.

랄프 플렉(Ralph Fleck), 리우 정용(Liu ZhengYong), 벨린다 폭스(Belinda Fox), 길리 앤 마크(Gillie and Marc Schattner), 제인 아니타 스미스(Jayne Anita Smith), 이세현(Lee SeaHyun), 황란(Ran Hwang), 리경(Li Gyung), 김기라(Kim KiRa), 박귀섭(Baki), 한성필(Han SungPil) 작가의 회화와 사진, 설치작품이 함께 어우러지며, 명품가구 이상의 문화와 가치를 제공하는 에이스 에비뉴(ACE AVENUE)가 제안하는 이탈리아 대표 디자인가구 ARFLEX, 트렌디한 가족소파의 대명사 BAXTER, 자연이 선사한 가구 RIVA1920이 함께 전시된다. 이번 'ART & LIFE' 전시는 예술과 디자인의 아름다움이 교차하는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랄프 플렉(Ralph Fleck)

랄프 플렉은 독일의 대표적인 페인팅 화가이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모든 것을 페인팅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피서객으로 가득 찬 화려한 여름 풍경이나 도시 거리의 풍경, 책들이 겹겹이 꽂혀 있는 책장 등 작가는 본인의 경험 속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오브제를 작품의 소재로 가져온다. 그는 언제나 정통회화의 범주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자 하며,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대 미술계에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려 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우선 강렬한 마티에르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두터운 색의 층을 캔버스 위에 형성함으로써 사실주의와 추상주의 그 중간 지점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그의 페인팅은 정적이면서도 빠곡한 화면 구성과 역동적인 붓 터치를 통해 유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작가로 하여금 관람자와 거리감을 두는 동시에 밀접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리우 정용(Liu ZhengYong)

표현주의 회화에 강한 초점을 둔 젊은 중국 아티스트 리우 정용의 작품 세계는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태워버리는 느낌을 주는 초상화가 특징이다. 그의 유화 작품은 사회의 복잡한 경험의 깊고 무거운 느낌을 전달한다.

리우 정용의 작품은 그만의 빠른 붓 터치와 독특한 컬러, 질감표현, 명암대비로 사람의 내면과 겉으로 보이는 인체를 삶과 죽음, 쾌락과 고통, 이성과 광기, 이상적인 신비로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자유롭게 무한한 가능성들로 리듬감 있게 표현한다.

길리와 마크 샤프트너(Gillie and Marc Schattner)

호주 출신의 길리와 마크 샤프트너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예술팀

으로 20년 동안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dogman, rabbitgirl 등 인간의 몸에 다양한 동물의 얼굴로 표현하며 캐릭터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화려한 사랑이야기를 작품으로 위트 있게 표현한다. 길리와 마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토끼와 강아지는 문화, 종교, 인종과 인간 안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은유이다.

나무 캔버스에 두텁게 조각하듯 나이프로 두께감을 주어 깊이의 차이를 표현하고 붓 자국을 그대로 남기는 임파스토 기법을 사용하여 경쾌하며 역동적인 느낌을 주며, 유쾌한 색감이 특징이다. 그들은 회화와 사진, 그리고 영화, 조각 등 다양한 작품으로 호주 및 아시아, 미국의 주요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다.

제인 아니타 스미스(Jayne Anita Smith)

영국작가인 제인 아니타 스미스는 작품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세계의 아래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를 사진, 오래된 그림, 미디어 등의 이미지들의 영향을 받아 구현한다. 그녀는 유토피아 가치관의 상실, 모더니즘의 실패와 같은 주제를 파고들며 인류의 현 상태를 연결해내는 작업을 한다. 그녀의 작품은 마치 뻑뻑한 숲이나 로코코시대에 상들리에의 형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회로애락이 느껴지는 다양한 표정들을 어둠과 빛의 대비로 표현되어 현대의 뉴미디어에 실리는 공포와 고난에 대한 그녀의 감정적 반응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감정이 느껴지는 다양한 표정들을 잉크와 흑연, 석고가루를 사용하여 흑백의 회화로 표현한다. 그녀의 어둠의 대비가 느껴지는 작품은 인물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해준다.

이세현(Lee SeaHyun)

이세현 작가는 <Between Red>라는 붉은 산수 연작들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는 동양이 추구한 최고의 아름다



운 경지인 산수를 인간의 잔혹함과 억압으로 읽어냄으로써 붉은색을 선택하였으며,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관심사인 아름다움, 행복, 슬픔, 고통, 삶과 죽음 등에 대한 질문을 건넨다. 그는 작품을 통해 내재된 인간의 폭력적 시선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자연에 각인된 역사의 상처를 직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상처를 모두 아우르고자 한다.

그의 작품은 전통 산수화를 닮아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다시점을 취하는 서양식 묘사를 통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풍경을 표현한다. 이러한 그의 풍경 이미지들은 동양과 서양, 인간과 자연에 대해 새로이 사유하며 새로운 상징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벨린다 폭스(Belinda Fox)

호주 멜버른 출신의 벨린다 폭스는 판화, 회화, 도자기, 조각 등의 다분야 예술가이다. 그녀의 판화와 드로잉 작품은 'Paul Guest Drawing Prize' 'Burnie Print Prize'에서 수상했다.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디테일과 컬러로 제작된 작품은 생성과 파괴, 희망과 절망, 아름다움과 부패와 같은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작품은 관객들에게 명상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의 조용한 순간을 제공한다.

황란(Ran Hwang)

황란 작가는 주로 단추, 구슬, 핀 및 실을 이용하여 대형 벽면 설치 작업으로 알려진 설치예술가이다. 작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수만 개의 단추나 구슬을 핀으로 박아 표현한 형상들은 화려하지만 고된 노동이 숨어있다. 그녀의 작품은 수많은 핀을 망치로 두드림으로 삶에 대한 성찰과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명상과 치유를 준다.

리경(Li Gyung)

리경 작가는 우리 미술계에서 드물게 빛으로 작업하는 작가이다. 움직이는 인간과 사회를 둘러싼 철학적인 사유를 그녀는 빛을 통해 드러낸다. 움직이는 빛의 공간을 통해 현대인의 분열적 자아를 표현하며 이를 벗어나는 것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임을 말없이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입체영상' 효과가 있는 렌티큘러(Lenticular)라는 매체를 이용해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주는 작품을 선보인다. 기존 거장의 명화 이미지에서 삭제, 첨부, 변형을 거쳐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를 생성하는 평면작품을 통해, 중첩되고 변하는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환영을 보여주며, 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김기라(Kim KiRa)

설치 미술가인 김기라 작가는 퍼포먼스와 설치, 영상 작업을 통해 예술과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작가이다. 작가의 시각언어는 많은 기호들을 수집하여 편집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작가 특유의 유머와 은유적 화법을 통해 현대 사회와 개인의 관계, 공론의 장을 찾기 위한 방식으로 작품을 표현한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구조와 가치를 파시즘이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비유하는 사회 비평적 주제를 가진다. 하지만 이를 드러내는 작가는 권력의 상징물들을 비틀어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무겁고 심각한 주제에 친밀하고도 유머러스하게 다가간다. 이 시대의 소외된 소수자, 약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대사회의 이면을 '차용과 패러디'를 이용하여 작가의 역량과 휴머니스트 기질에 의해 사회현실과 지배 권력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박귀섭(Baki)

사진작가 박귀섭은 그의 작품만큼이나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1984년생인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발레과를 졸업하고 국립발레단 단원으로 5년여 동안 활발하게 발레리노 활동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몸짓으로 표현하는 예술만큼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에 매우 큰 관심과 재능이 있었으며, 동료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들을 촬영하며 그의 사진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작인 <웨도우> 시리즈는 무용수들의 몸과 움직임, 실루엣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음이 연상되는 악보나 인체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뿌리, 깊은 심연의 바다를 표현한 작품이다. 그리고 최신작 <웨도우-1> 시리즈는 발레리나의 움직임을 순간 포착하였지만 마치 치맛자락이 흔들리고 있는 듯한 신비로움을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원색과 흑백의 조화로 보여주고 있다.

한성필(Han SungPil)

한성필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역사적 건물의 가림막이 설치된 세계 곳곳을 답사해가며 현장 사진작업을 펼친다. 파사드 프로젝트(Façade Project)라는 연작에서 작가는 중후한 건축물 앞에 드리워진 정교한 가림막과 실제 건물 사이의 미묘한 간극을 끄집어내 보여준다. ‘원본과 복제’, ‘실제와 가상’ 그리고 ‘공간의 개념적 해석’이라는 사진매체의 근본적 질문과 형식을 사진과 영상, 설치 작품을 통해 풀어낸다.

관람 정보

- 전시제목: ART & LIFE
- 전시기간: 2016년 9월 27일(화) ~ 2016년 11월 24일(목)
- 관람시간: 화요일 ~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월요일 휴관)
10:30 ~ 18:00
- 전시담당: 채가영 (010-2908-2114)
- 주소: 서울 성북구 성북로 49 아트스페이스 벤
www.artspaceben.com
- 문의: ☎ 02-742-0788 / artspaceben@gmail.com

-
아트 스페이스 벤은 예술과의 소통에 기반하여 기획, 초대, 대관 전시 사업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국외 유수 갤러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작가들의 국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회화, 조각, 영상뿐만 아니라 건축, 가구,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전시, 퍼포먼스, 교육 프로그램, 파티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예술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3월 성북동에 문을 열어 어느덧 네 번째 가을을 맞고 있다.



우리 동네 문학 살롱

푸른누리마을학교 & 동구여자중학교 시화전

편집부

2015년 봄부터 동구여자중학교와 성북의 마을이 만나 마을과 학교가 함께 교육과 배움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로 <마을학교상생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푸른누리마을학교’는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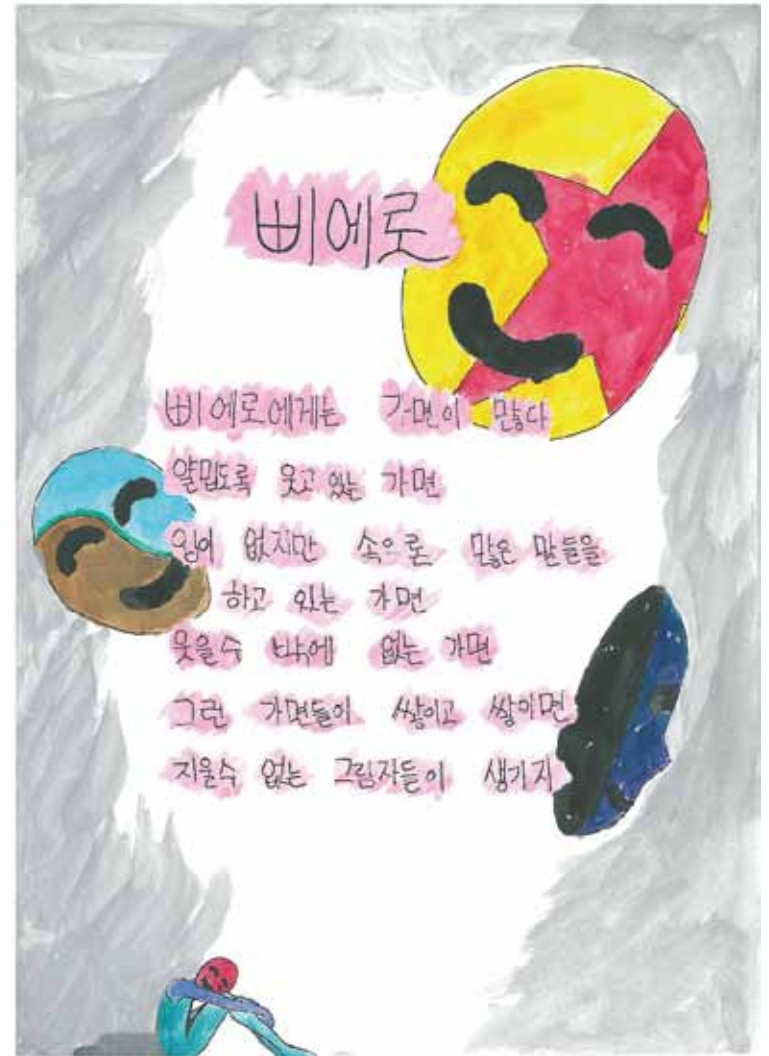
동구여중은 푸른누리마을학교를 통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동네 이모와 삼촌,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마을 안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였고 마을 속의 학교, 학교 안의 마을이 서로 일상을 공유하면서 교육과 돌봄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1회 성북 훈민정음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시화전에는 동구여중 1학년 국어와 미술 교과 융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린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성북동 마을 잡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는 축제 기간 동안 성북동 쌍다리 부근 가벽에 전시되었던 시화전 작품들을 발견하고 지역의 학생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마을 잡지에 소개하기로 하였고, 푸른누리마을학교 및 동구여자중학교와 협의하여 시화전 출품작 중 네 편의 작품을 이번 8호에 실게 되었습니다. 성북 훈민정음 축제와 시화전을 통해 학생들의 작품을 미처 만나보지 못한 성북동 및 성북구 주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삐어로

삐어로에게는 가면이 많다
 알뜰도록 웃고 있는 가면
 입이 없지만 속으론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가면
 웃을 수밖에 없는 가면
 그런 가면들이 쌓이고 쌓이면
 지울 수 없는 그림자들이 생기지

김민서



단 두 가지

양예진

내 앞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나는 길을 걷고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나는 손을 잡고 싶다.
어느 손을 잡느냐
그것도 나에게 달려 있다.

나는 모르겠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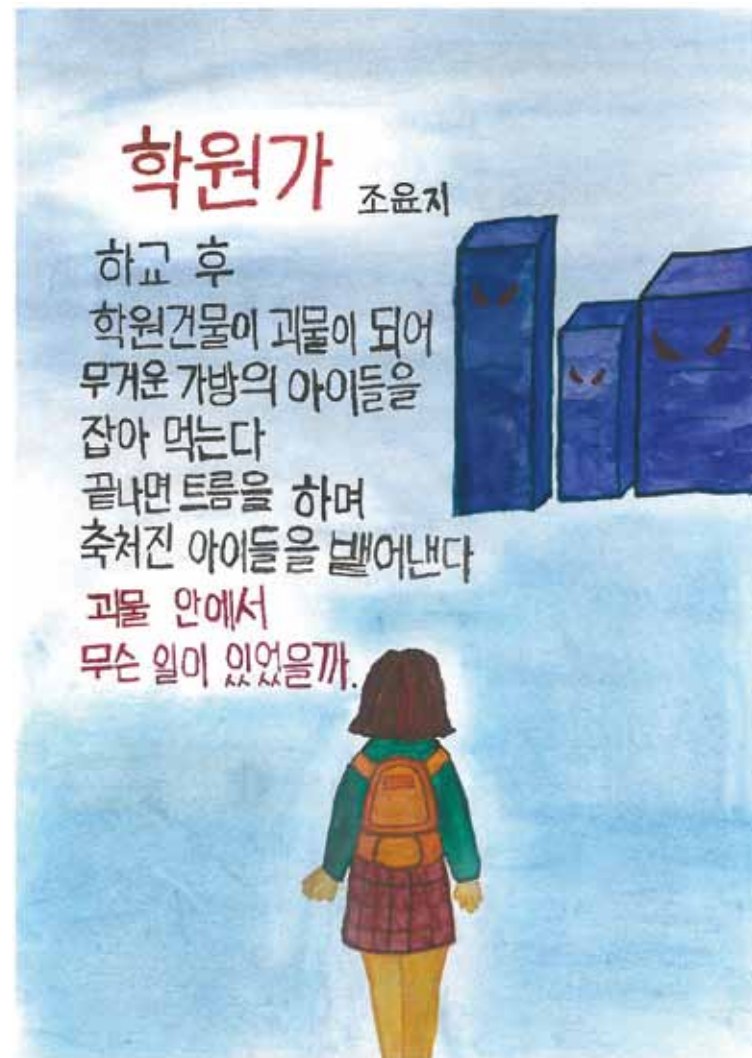
무조건 단 두 가지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나는 그것에 따라 달라진다.



학원가

조윤지

하교 후
학원건물이 괴물이 되어
무거운 가방의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끝나면 트름을 하며
축 처진 아이들을 뱉어 낸다
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달리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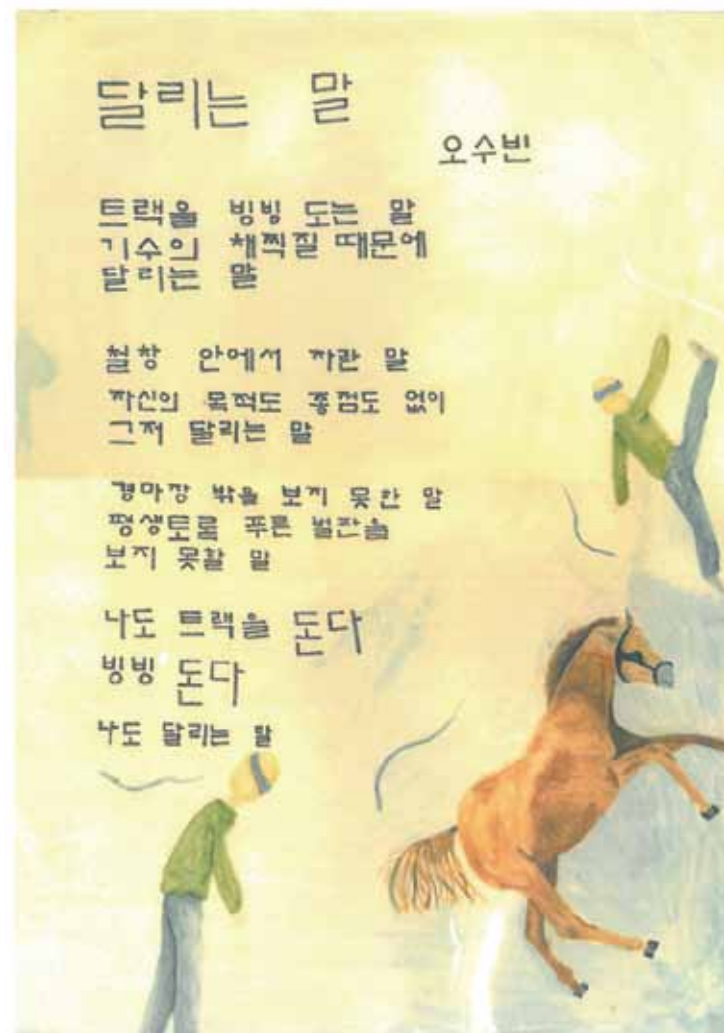
오수빈

트랙을 빙빙 도는 말
기수의 채찍질 때문에
달리는 말

철창 안에서 자란 말
자신의 목적도 중점도 없이
그저 달리는 말

경마장 밖을 보지 못한 말
평생토록 푸른 별관을
보지 못한 말

나도 트랙을 돈다
빙빙 돈다
나도 달리는 말





주민 인터뷰

성북동 착한 형을 만나다

김현주, 오예주

성북동에 오면 성북동 메인 도로 중간쯤에 마치 천하대장군처럼 마을을 지키듯 서 있는 원관희 님을 볼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성북동에서 착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뵈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는 것도,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는데 인터뷰를 하자 하시니 쑥스럽네요.(웃음) 저는 성북동에서 45년을 살았습니다. 성북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엔 성북동천이 복개되기 전이라서 날마다 가재 잡고 물놀이하며 놀았지요.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4살 때 이곳 성북동으로 이사와 계속 살고 있어요. (집 쪽을 가리키시며) 홍익중·고등학교 올라가는 산 중턱에 살고 있죠.

목소리의 울림이 무척 좋으세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성악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삼형제이고, 삼형제 모두 목소리가 좋은데 저만 성악을 했었죠. 지금은 그만 두었어요. (미성의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성악을 계속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요. 군대 갈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성악을 포기했죠. 예전에 몇 번, 라이브카페에 가서 노래도 부르곤 했는데 성악발성이라 대중적인 노래와는 맞지 않아서 잘 안갑니다.

성북동에서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원관희 님은 성북동 손가네 곰국수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고 계심) 이 일을 한 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식당 영업은 9시부터이지만 저는 11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근무를 하죠. 손님들도 많이 알지만, 성북동에 오래 살아서인지 이 동네 분들을 거의 많이 압니다. 거의 24시간을 성북동에서만 보내다보니 성북동이 편하고 좋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자동차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자동제어 공장자동화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지요. (인터뷰 도중에도 차가 들어오는 지 보시느라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긴장하심)

성북동에서 제일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동네에 공터가 엄청 많았어요. 공터에서 동네친구들과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며 뛰어놀던 생각, 냇가에서 가재 잡던 생각, 성북천에서 썰매타고 놀던 생각들이 기억납니다. 예전엔 여기 성북천에서 빨래도 많이 했어요. 그때가 그림쥬. (그때를 회상하듯 먼 곳을 바라보심) 이젠 성북동이 많이 변했죠.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새로운 음식점과 카페가 생기고요,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가 인터뷰하시는 걸 보고 던지는 말씀. ‘성북동 착한 형, 여기서 뭐하는 거야~’ 주위 사람들은 원관희 님을 성북동 착한 형이라 부른다고 하심)

성북동에 추천할만한 명소가 있는지요?

네. 성북초등학교 후문을 지나 성락원길을 따라 올라가면 성락원 우측 길을 지나서 꽤 깊고 큰 연못이 몇 개 있어요. 그 곳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아주 조용하고 초록나무가 많은 산책로입니다. 한 번 가보시면 좋고 하실 겁니다.(살짝 미소 지음)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저는 3형제 중 막내지만 80대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 건강이 늘 걱정됩니다. 중간에 고비가 있어 돌아가실 뻔 했던 적도 있었죠. 어머니가 계속 건강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성북동은 조용해서 크게 변하는 것은 싫지만 옛날 좁은 골목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나다니기도 불편한 좁은 골목과 낙후된 곳을 보수해서 주민이 살기 좋게 깔끔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자 바로 달려가신다. 점심시간이라 바쁘실 것 같아 다음을 약속하며 일어섰다. 차를 향해 뛰어가시는 건장한 몸에서 건강하고 착한 마음과 성실함이 느껴진다. 성북동에서 노모와 함께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김현주는 본지 편집위원이다. 성북동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성북동 한 모퉁이에 터 잡고 살아가는 주민이기도 하다. 성북동이 성북동다움을 간직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성북동 사람이다.

오예주는 본지 편집위원으로, 창간호부터 편집위원으로 참여해왔다. 성북동에 살기도 했고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성북동이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로 남기를 바라는 성북동 사람이다. 지금은 성북동에 살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꿈꾸고 있다.



주민 인터뷰

성북동 토박이 모녀를 만나다

김현주, 오예주

성북동 끝자락 한국가구박물관 옆 코너에 자리 잡은 카페, 쉬어가고 싶은 욕심을 부르는 시원한 풍치의 야외 테라스와 온통 초록나무를 안고 있는 정원이 눈길을 끈다.

안녕하세요. 성북동의 산 증인 이민진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성북동에서 태어났고 결혼도 여기서 했습니다. 성북동엔 현재 55년째 살고 있고요. 이 카페도 현재 살고 있는 자택을 개조해서 막내딸(공명선 님)에게 열어준 겁니다. 이 카페 사장은 제가 아니고 제 딸이에요. 딸이 한 번 해보겠다고 했고 의지도 강한 것 같아서요.(웃음) 살림집은 바로 위층에 있어요. (이 때 카페 사장님이신 막내딸 공명선 님 등장)

두 분은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남편을 도와 강남에서 이런 저런 서비스 업종의 사업을 많이 했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가끔 딸이 바쁘거나 외출할 때는 카페에 와서 도와주기도 하죠. 딸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이곳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하다가 지금은 휴학을 하고 카페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마을주민들과의 교류는 있나요?

성북동 이 집에서만 55년을 살았는데 대사관저가 많이 있는 이 동네의 특성상 교류가 많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성북초등학교 동문회가 있단데 거기나 가 볼까요? (웃음)

공명선님은 카페는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 동네 카페에 앉아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할 때가 잦았어요. 동네 분들이 오셔서 모임도 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었죠. 한국에 들어오니 성북동 이 곳은 지역적으로 좀 외지고 험해서, 쉬었다 가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웃 주민을 비롯하여 지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만들고 싶어서 오픈하게 되었어요. 호텔경영학 전공과도 연관이 있고요.

언제 카페 ‘neighborhood’를 오픈했나요?

올 해 석가탄신일(5월 14일)에 오픈했어요. 홍보도 안했는데 당일 엄청 많은 손님들이 와서 당황스러웠어요. 둘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카페는 쉬는 날 없이 연중무휴로 운영해요. 아빠의 사업 운영 원칙에 따라 풀타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도 다 직접 발품 팔아 구해서 꾸몄어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책이 적지만 앞으로는 벽면서가를 만들어 책으로 벽을 다 채우고 싶은 바람입니다. 상호명도 직접 지었어요. 성북동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사실 저는 살면서 이웃과 소통이 없어서, 여기서 이웃 분들과 소통과 나눔을 함께 하고 싶어서 ‘neighborhood’라고 지었어요.(웃음)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동네사람들과 모임도 하고 이웃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고요, 우리 카페가 많은 사람들의 쉬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반상



회도 하고 영화도 보고 독서회 등 다양한 모임을 열고 싶어요.

(인터뷰어 김현주 : 성북구 도서관의 드림서재와 연계해서 독서회나 작가와의 만남 등의 행사를 해도 좋겠네요.) 아, 저도 바로 그런 것이 소망이었어요.(웃음)

아, 그리고 저희 가게 모토가 웰빙인데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일함량 제일 많은 최고의 시럽, 싱싱한 생과일 등을 사용하죠. 저희도 먹는데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죠. 처음엔 손님들이 동네카페라 비싸냐고 물으시더니 점점 반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북동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은요?

성북동은 항상 시골 같이 아늑하고 고즈넉한 느낌이에요. 아파트나 큰 건물들과는 어울리지 않죠. 개발되지 않고 한적한 이 느낌 이대로이길 바랍니다.

사장님에게는 성북동은 어떤 곳인지요?

어릴 때 외국에 나가 공부하느라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동네보다는 집이 그리웠죠.(웃음) 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 어릴 때 동네에서 할로윈 행사를 했었어요. 동네 집집마다 문 앞을 호박 등으로 치장을 하고 거기에 사탕을 넣어 놓았는데 누군가 문 앞에 놓여있는 사탕을 몽땅 훔쳐가는 일이 발생한 뒤로는 아는 집들끼리만 하다가 어느 순간 할로윈 행사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번에 저희 카페에서 엄청 화려하게 할로윈 행사를 할 예정이에요. 어릴 때의 좋은 추억을 되살려 여기서 하면 그때의 성북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웃음)

neighborhood, 카페 이름 그대로 성북동 윗동네 이웃들의 일상이 모이는 장소가 되길 바라며 재미있게 카페를 운영하는 모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뒤로 하고 발길을 성북동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돌렸다. ㉔

-

김현주는 본지 편집위원이다. 성북동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성북동 한 모퉁이에 터 잡고 살아가는 주민이기도 하다. 성북동이 성북동다움을 간직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성북동 사람이다.

오예주는 본지 편집위원으로, 창간호부터 편집위원으로 참여해왔다. 성북동에 살기도 했고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성북동이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로 남기를 바라는 성북동 사람이다. 지금은 성북동에 살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꿈꾸고 있다.



주민 기고

월요약국으로 오세요

최주애

“반갑습니다! 약은 없지만 약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월요약국입니다.”

약국인데 약은 없는, 매주 월요일에만 열리는 성북동의 특별한 약국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일, 여성이라서 더 복잡하고 특별하게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 등, 분명 우리 몸 안에서 매일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정작 잘 모르는 것들이다. 월요약국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강조한다.

나는 올해 7년차 약사로 졸업 후 줄곧 약국에서 근무해왔다. 사람을

좋아하고 낮가림이 없어, 다양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약국이라는 일터에 만족하고 있다. 물론 어렵고 까다로운 손님을 만나면 힘들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반대로 보람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은 곳이 약국이다. 아직 개국을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내가 꾸린 약국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건강을 돌보는 약사를 꿈꾸고 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고즈넉한 성북동의 분위기에 반해 이사를 온지 몇 달 후, 우연히 17717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기획자 김선문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다. 성북동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엮어 여러 가지 문화예술 기획을 하는 김선문 씨의 눈에는 사회적경제와 마을활동에 관심 많은 약사가 참 독특해보였던 것 같다. 나의 관심사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쪽들어보더니 이 동네에서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것이 월요약국 기획의 시작이 되었다.

이야기가 오가고 곧바로 월요약국을 시작한 건 아니다. 2015년의 초여름에 처음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후로 1년이 지나 올해 8월에 진행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처음엔 약사인 내가 동네에서 약 없이 무얼 할 수 있을까 막연했다. 문화예술 분야 기획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17717과 약학이라는 분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약사와 시민이 처방전을 매개로 소통하는 것을 넘어 직접 관계 맺는 방식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렇게 월요약국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되었고 곧 진행하게 된 것이다.

어깨에 피로감을 올려둔 당신, 잔병치레가 많아 툭하면 골골대는 당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갖고 싶은 당신, 내가 먹을 영양제를 못 고르는 당신. 이렇게 4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시작했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반, 너무 많이 와서 공간이 부족



하면 어쩌나 하는 설레발 반으로 첫 월요약국이 열릴 날을 기다렸다. 나름의 준비는 열심히 해왔는데 정말 아무도 안 오면 남은 3주를 잘 해낼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첫날 공간에 준비된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와주셨고 덕분에 나는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4주간의 월요약국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월요약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4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주셨던 신혼부부가 있었다. 오실 때마다 꼼꼼하고 정돈된 필기와 함께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던 분들이었는데 4주간의 월요약국을 마친 바로 다음 화요일 아침, 남편 분을 만난 것이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렸고 마침 출근방향도 같아서 지하철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약국에 가면 붙어있는 포스터 같은 것들이 달리 보이고 최근에 보았던 다큐멘터리의 내용도 월요약국을 듣고 보니 더 쉽게 이해가 가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또한 지금 건강을 위한 작은 것들이 나중을 생각하면 큰 차이를 가져오니 잘 실천해보려 한다는 말에 뿌듯함을 느꼈다.

월요약국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동네주민들의 이야기를 맘껏 듣고 또 각자의 이야기에 맞는 도움을 주는 소통을 통해 약사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방향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할지를 생각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기회를 맘껏 펼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성북동에 있는 17717과 동네공간이 너무나 큰 도움을 주었다. 나 혼자였다면 아마 앞으로도 영영 시도해보지 못하였을 일들이다.

8월의 월요약국은 준비한 주제들이 일반인들이 듣기에 무리가 없고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들인지 점검해보고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인 시각



에서 알아보고 왜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대화를 나눠보는 월요약국의 기본은 유지하되, 그러한 습관을 실천해보며 스스로 변화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이 다음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회성 참여가 아닌, 꾸준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꼭 진행해보고 싶은 계획이다.

저마다 느끼고 있는 본인의 건강 문제와 더불어 건강해지려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막연해한다. 방법은 알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건강을 위해 유난스럽게 굴자는 말이 아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의 선택이 생활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월요약국이 우리 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바람직한 생활 습관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소통하는 곳으로 성북동에 자리 잡길 바란다. 

-

최주애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고, 그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7년 차 약사이다. 다른 이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이 건강해 지도록 하는 일을 사랑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자극받는 일을 좋아한다. 현재 '어린이 여성건강을 위한 약사모임'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

17717은 성북동 177-17번지(성북로8길 11) 지하에 위치한 문화·예술 및 전시 공간이다. 주민공동체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잡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간행 사업에서 편집디자인 역할을 맡아 함께 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 우리동네 무중력지대>에 선정되어 청년, 지역 주민이 힘을 모아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월요약국은 그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

동네공간은 성북구 지역 사회에서 활동 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체들이 필요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고자 만든 공동공간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 활동 주체들이 필요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공간 자급의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2016년 10월 현재 성북동 동네공간은 건축그룹[tam], 성북동천,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성북마을기금협의회, 성북마을무지개, (주)아트버스킹, 이에레 가족, 창작집단미러, 한살림 성북동마을모임 등 성북동/성북구 기반의 주민모임, 단체, 회사 등이 공동 사무/활동 용도로 함께 꾸려나가고 있다.

mn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아이와 만남이 있는 성북동의 특별한 약국

월요약국

일시: 10.31/11.7/11.14 (월) 20:00-21:30
장소: mn (성북로8길 11 지하)

3주간의 프로그램

우리 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실천해볼 수 있습니다.

10월 31일 1주차	11월 7일 2주차	11월 14일 3주차
무기력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의 균형 찾기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 몸 이해하기	우리 동네 약국 똑똑하게 이용하기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방법 약사가 말하는 '잘 쉬는 것'의 의미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를 막아내는 방법 약사가 말하는 '잘 먹는 것'의 의미	내가 먹는 약이 독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 알아보기

참가비 3만원 (3주 프로그램 참여 비용)

신청 및 문의 • 김선문 • 010-4441-7717 • project17717@gmail.com

2016 성북동천은?

편집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7호 발간 및 출간기념회 개최

편집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수요일 저녁 성북동 작은갤러리에서 성북동 마을 잡지 7호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 안팎에서 30~40여분의 주민, 독자, 지원기관 관계자께서 방문하여 올해도 변함없이 간행된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잡지 출간을 축하해주셨습니다.



2016 성북동 야생화 탐방 (봄/가을)

동네 곳곳에서 자라나는 풀, 꽃, 나무들을 돌아보고 배우는 시간 <성북동 야생화 탐방>이 지난 6월 봄에 이어 가을에도 열렸습니다.

2016 성북동, 시인과 만나다

지역 안에서 주민과 시인, 음악인이 만나 함께 시와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 행사 <성북동, 시인과 만나다>를 올해부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출간기념회와 별도로 개최합니다. 올해 시인과의 만남은 10월 19일 수요일 저녁 「뿌리깊은나무 • 샘이깊은물 소장전 : 1976년의 봄과 1984년의 가을」이 열리고 있는 1771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박준 시인과 음악그룹 '시로(時路)'의 리더이자 대금 연주자인 차승민 님을 모시고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가입 및 운영위원 선임

지난 2015년 성북, 강북, 노원, 도봉 등 동북 4개 지역의 마을미디어 단체들을 아우르는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가 발족하였는데요, 지난 1년여 동안 네트워크 가입 및 활동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다 지난 6월 13일 정식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더불어 네트워크 정회원 단체 세 곳의 추천을 받아 9월 전체회의에서 성북동천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회원이자 운영위원으로서 성북구 및 동북 지역 4개구에서 인쇄 매체형 마을미디어 단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 연대를 도모하고 네트워크가 소속 단체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조직으로서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북동 마을계획단 단원들과 함께 한 성북동 마을여행을 진행했고, 성동구 마을미디어 아카데미와 칠곡인문학마을협동조합에서 성북동천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마을미디어 강의를 하였습니다. 성북구 내에서 탄탄한 주민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삼태기마을로부터 ‘청년과 마을의 만남’을 주제로 사례 나눔을 요청받아 성북동천이 마을 청년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활동해왔는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의 대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전공과목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성북동 리마인드 웨딩〉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이 때 촬영한 사진과 잡지에 실은 글을 편집하여 2016 성북구 마을공동체 UCC(이야기사진/영상물) 공모전에 출품하였고 성북전역/이야기사진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함께 성북동 마을잡지와 해방촌 마을잡지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인쇄 매체를 만드는 단체들의 고민과 바람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글로 정리하여 서울마을미디어웹진 「마중」21호 - 6월 인터뷰 코너에 '마을잡지대담 : <남산골 해방촌>과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싣기도 했습니다.

<http://maeulmedia.tistory.com/356>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성북동천 초대 대표이자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초대 편집위원장이셨던 최성수 님의 강원도 고향집에서 숙원 사업(!)이었던 회원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 때의 추억은 지난 7호에서 김철우 대표님의 그림과 박진하 편집위원님의 후기로 실렸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정리해놓고 보니 참으로 많은 활동들을, 아직 2016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도, 너무나 충분히 잘 해냈다는 듭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참여해주시고 활동의 끈을 놓지 않는 성북동천 회원들의 애정과 참여, 그리고 지역 안팎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입니다. 남은 4분기에도, 또 다가올 2017년에도 성북동천의 활동에 지지와 격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성북동 주민공동체 ‘성북동천’과 함께 할,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성북동천’은 성북동 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법인·단체, 비영리조직, 전문가 및 예술인들이 모여 설립한 모임으로,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간행, 마을탐방 진행,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획, 지역 내 공론의 장 마련 등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 간 연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동 주민을 중심으로 17717, 건축그룹[tam], 동네공간, 디미방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북동천’은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간행과 마을탐방, 문화·예술 행사 또는 주민 맞춤형 배움 프로그램 기획, 지역의제 발굴, 지역 내 공론의 장 마련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성북동 거주자나 생활권자, 혹은 성북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 성북동천 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연락하실 곳 | 전자우편 seongbukdong.town@gmail.com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친구 검색 후 추가)

전화 070-8871-5998

(건축그룹[tam]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전화이므로 통화 시 ‘성북동천’에 연락한 것임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문자 수신 가능한 인터넷 전화입니다.)

회비 및 후원금 입금 계좌 안내 |

우리은행 1006-901-392512 [예금주: 성북동천]

성북동천 회원 가입 신청서

이름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거주지/생활권		성북동 []	그 외 []
관심 분야	마을잡지 []	마을여행 []	문화행사 []	예술 활동 []
	내가 직접 기획하고 싶어요 []		준비된 행사/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	
	지역 의제	동네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 의제를 갖고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기나 참여해보고 싶어요 []		
	기타			
회원 구분	정 회원 []	의결권, 선거권/피선거권을 갖고 단체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월 5,000원의 회비 납부와 적극적인 활동 참여가 필수입니다.		
	후원회원 []	성북동천의 활동에 우선적으로 초대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금전 후원과 재능 참여로 단체 활동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사항!	상기 본인은 성북동천의 정회원[] / 후원회원[] 으로 가입 의사를 밝히며, 회원으로서 단체 정관과 규약, 규정 등 제반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북동천 활동 및 회원 관리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안내사항	성북동천은 법정/지정 기부금단체가 아니며, 성북동 기반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설립한 비영리(임의)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비 출금은 CMS 방식이 아닌 회원 개인이 본인 계좌에서 회비 납부계좌로 자동이체 출금 신청을 하거나 계좌 이체, 정기 모임 시 현장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6 - 901 - 392512 (예금주: 성북동천)			

20 년 월 일

가입신청자

(날인/서명)

성 북 동 천 귀하

마을미디어, 지역공동체, 어쩌다 4년차

김기민

2016년 병신(丙申)년, 성북동천도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도 따져보니 햇수로 어느덧 4년차를 맞이했다. 지난 2013년 성북동 마을학교에서 만난 성북동 주민들, 지역의 문화 기획자와 예술인,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몇몇이 모여 ‘성북동천’이란 단체를 설립하고 숨 가쁜 활동을 이어가다 문득 시간을 돌이켜보니 그러하다. ‘어느덧’이란 말보단 그냥 어쩌다 보니 4년여를 맞이했다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모임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상근하지 않으며 전임으로 노동하지 않는 와중에, 순전히 회원을 자임하고 무보수 자원 활동을 자처한 사람들에게 의해 지금까지 굴러 왔으니까 말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이 쌓여 익숙해지고 일이 손에 익어 많은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지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감과 중압감을 갖게 된다. 우리가 지역 안에서 그간 해온 활동과 만들어온 잡지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쌓은 역사를 존중받는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라도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비단 이 잡지가 성북구와 서울시의 재정으로 조직된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제작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이 책임의 시발점이라면 종착점은 이후 이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력과 공,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잡지를 애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늘 다음 호를 기다리는 독자들이다. 우

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 앞에서 한 없이 왜소해지고 작아진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읽는 분들에게 떳떳한 잡지를 만들거란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것인지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명징하게 인식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고민한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마을 잡지란 무엇인지, 진정한 마을미디어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단지 지역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마을미디어가 될 수 있을까?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만들면 마을미디어가 되는 것일까? 서로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내용만으로 채워서 공유하고 나누는 것만으로 마을미디어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영리와 비영리, 공익과 사익 사이 그 어딘가 썸에 발 딛고 서 있는 것이 옳을까?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똑 부러지게 응답할 수 있을까.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한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대면 접촉하며 관계 맺을 수 없는 지금 세상에서, 그렇다고 내가 사는 동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채로 삭막하게 살고 싶진 않은 우리 마음 속 바람과 소망을 ‘성북동천’이란 모임을 통해, 그 모임이 하는 활동을 통해 실현시켜 보고픈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만드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만남이었고, 결과를 나누는 것 또한 만남의 연속이었다. 비록 만남과 관계의 확장은 말도 못할 만큼 느리고 티도 나지 않을 만큼 소소했지만 세월과 노력은 무상하지 않았다.

하면 할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고민이 깊어질수록 할 일은 많아진다. 마을잡지를 애정하시는 독자 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참여의 영역으로 초대하고, 그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좀 더 활동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다지는 과정을 미룰 수 없다. 편집위원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위원으로, 후원위원으로, 기고자로, 그 밖에 많은 역할들로 부단히 모심으로써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 확장해야 한다. 더불어 재정도 확충하고 사업재원과 운영 경비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안팎의 다양한 활동 단위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부단히 소통하며 관계망을 다져야 한다. 마을미디어를 사익 추구의 방편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면서도 자위 수단에 머무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공익과 비영리, 자부심과 명예 사이의 그 어딘가 즈음에서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가 갖는 고유의 색깔과 정체성, 우리가 시작할 때 먹었던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치지 않아야 한다.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것이 벅차도, 노트북이 낡고 오래되어 버벅거리는 것을 악착까지 쓰고 또 써야 할 지라도, 그러다가 기껏 교정·교열 본 원고 수정안, 사업비 증빙과 인건비 지급신청을 위해 준비해둔 서류들이 온데간데없이 뭉땅 다 날아가도, 그래서 더 이상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생기지 않게 되더라도 지쳐서는 안 된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캔디처럼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으면서 말이다. 어쩌다 4년차는 여간 굳건해서는 안 된다. 

-

김기민은 성북동천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숫자에 1도 관심이 없지만 어쩌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줄곧 총무를 맡아왔다. 나름의 정리벽 덕분에 지난 몇 년간 사업운영담당자 역할만 맡으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 밖에서 실무 지원을 하거나 요청받은 원고를 조금 썼다. 2016년에 편집위원회에 합류함과 동시에 (불현듯) 순번제로 돌아가며 맡는 편집위원장이 되어 7·8호 간행을 총괄하게 되었는데, 웬지 9·10호 간행도 맡게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고 한다.



지난 2013년부터 사용한 성북동천의 직인을 새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단체 직인을 로고로 사용했던 전통(?)대로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직인의 날인 이미지를 단체 및 성북동 마을 잡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로고로 사용합니다. 성북동천 새 직인과 로고를 디자인해 주신 임진수님께 성북동천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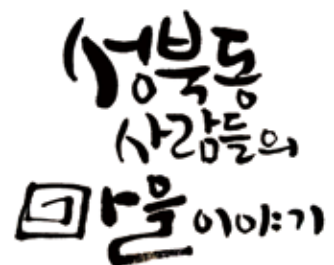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7·8호 편집위원장 김 기 민

성북동천 대표 김 철 우

임진수 - 성북동천 새 직인 및 로고 디자인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 동국대학교육대학원 졸업

現 추계예술대학교, 인하대학교, 꼭두일러스트학교 강사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8호 <비매품>

2016년 11월 30일 발행

편집 |

상임 편집위원 김기민 김현주 김철우 박진하 오예주 최성수

비상임 편집위원 김혜진 장영철

교정·교열 | 최나현

디자인·사진 | 17717(김선문)

펴낸곳 | 성북동천

기획·편집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

후원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동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12-6, 1층 동네공간

seongbukdong.town@gmail.com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070. 8871. 5998